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6호 [루게 제2271호]

주제 103
(2014). 4

19
토요일
음력 3. 20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량예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

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가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오가미 쟁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과 대표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김기남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리길성, 지승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 한생을 바친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오가미 쟁이찌 사무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지승철 부위원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조직위원장도 축사를 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사를

참담케 실현하며 그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드는데있어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내세우는 총적목표이고 숭고한 리상이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혁명사상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위대한 현실을 낳으며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인류력사상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 김정은각하께 뜨거운 감사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온갖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세계자주화위업을 추종하자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토론했다. 그는 자주와 평화, 변명에 대한 시대적흐름이 고조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



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역할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시대 세계자주화위업에 리론실천적기여를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사상,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는 선군정치, 세계의 자주화위업과 개조에서 선군정치의 중요성》,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리익수호의 본보기》, 《김정은제1비서의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고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세계혁명위업에 리론실천적기여를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사상》,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는 선군정치, 세계의 자주화위업과 개조에서 선군정치의 중요성》,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리익수호의 본보기》, 《김정은제1비서의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2014년 2월 25일)를 학습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사회호상관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류의 자주위업》,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들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태양절에 즈음하여

재로동포들 경축모임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에 즈음하여 12일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에서 재로동포들의 경축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안향진 로씨야고통련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조국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출판물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모임장소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연설, 조국방문 감상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토론회자들은 4월 15일은 조선인민의 력사에서 세시대가 열려진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날이 있어 오늘의 조선이 있다고 진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봉쇄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고 핵억제력을 갖춘 당당한 자주적

국가로 위용떨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거창한 변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조국 재로동포들 경축모임 진행

태양절경축 재우즈베끼스단동포들의 조선 민족예술축전 진행

태양절경축 재우즈베끼스단동포들의 제21차 조선민족예술축전이 13일 마슈켄트주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재우즈베끼스단 동포단체 일군들과 17개 동포예술단 성원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우즈베끼스단주재 우리 나라 립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주영일 우즈베끼스단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인 태양절을 맞으며 재우즈베끼스단동포들은 해마다 조선민족예술축전을 조직하는 것을 전통화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방문의 나날 직접 목격하면서 조국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신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인민적품모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인류의 다함없는 흥미를 받고계신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날로 변모되는 현실을 통하여 조국의 미래와 통일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고있다.

우리 동포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맞추어 통일애국사업을 더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축전무대에는 합창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중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우리는 하나》, 무용 《부채춤》, 《장고춤》을 비롯한 종목들이 울라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첫기 야영 시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첫기 야영이 시작되였다.

야영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이 참가하게 된다.

첫기 야영시작모임이 15일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되였다.

김진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청년동맹 일군들, 야영소 교직원들과 야영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야영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에 이어 《소년단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야영기발이 게양되였다.

야영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강성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가는 나라의 역군으로 역세계 준비할 결의를 다지며 야영기를 향해 소년단행진을 하였다. 이어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야영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석암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각지 야영소들에서도 첫기 야영시작모임이 있었다.

본사기자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 필요한 라일생산을 늘이고있다.
—대동강타일공장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6돐이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87(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로작에서 민족대단결사상을 천명하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라는것을 명시하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해내의 온 민족의 애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널리 실현할데 대한 내용의 민족대단결5대방침이 새롭게 천명되여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이 뚜렷이 명시되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은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단결의 기초와 리념,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힌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내의 우리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민족대단결의 휘황한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으로 높이 찬양하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과 의지로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 격동적인 자주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이 나날 북, 남, 해외 3자의 련대련합이 한층 강화되는 속에 조국통일운동은 온 민족이 함께 하는 거족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내외 반통일호전세력의 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중대

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온 조국인민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이고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력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이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 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자주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침략적인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을 동족파의 대결에로 부추기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사적정책과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이 계속되는 한 우리 민족은 분렬의 비극과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며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미국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민

족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버려야 한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을 중지하고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동포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해내의 온 겨레는 분렬주의세력의 리간, 와해책동을 단결의 힘으로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며 련대련합하여 공동행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기여여 열어나가야만겠다.

최광혁